

월요광장

문화도시가 되는 인과관계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스페인 북부 바스크의 소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역시 명불허덕이었다. 물고기를 생각하며 완성했다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은 목전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을 발하는 조각 작품 같았다. 그는 설계를 할 때 물고기의 비늘을 상상하며 항공기나 쓰인 고가의 티타늄을 외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무모한 계획대로 두께 0.38 밀리미터의 얇은 티타늄 4만 2875장으로 바람과 햇빛에 반응하는 거대한 조형물이 완성되었고 당시 건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이 탄성되었다.

다고 하니 과연 미술관 하나가 죽어가던 도시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신화가 될 만도 하다. 빌바오는 20세기 초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했던 항구 도시였다. 한 때 부유했던 도시는 제철과 조선 산업의 주요 자원인 철강이 고갈되면서 급격한 침체를 맞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실업률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과 더불어 산업화의 결과로 심각한 환경 오염까지 떠안았다. 이 뿐이 아니었다. 도시는 마약을 비롯한 심각한 범죄가 들끓었고 설상가상으로 도심이 2층까지 침수되는 대홍수로 도시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홍수 피해로 인한 긴박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빌바오는 도시 재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서 사는 삶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공력을 쏟아 이룬 재생이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년간 광주는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형 창출을 목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고 운영되면서 누군가는 전당이 만들어졌으니 문화도시조성사업이 거의 완수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야 시작이다. 모두가 나서서 도시환경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재탐색하고 도시 재생에 끊임없는 관심과 공력을 쏟아야 한다.

수필의 향기

여름 한낮을 영화와 함께



김향남 수필가

일상을 영화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 일상이 영화 같을 수는 없을까? 그런 영화들이 더러 있지만 그중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은 대놓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다.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잠만 하면 내 일상도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으니까. 물론 '잠만 하면'이라는 난해한 조건이 붙긴 하지만 아마 감독이 노린 것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 '당신의 일상도 영화처럼 아름다워요'라거나, '당신의 삶도 영화가 될 수 있어요'라는 위안. 혹은 평범한 일상이라도 좀 다른 시각을 가져보면 어때요? 하는 제안이나 질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영화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미장센과 대사를 통해 또 다른 심층적 맥락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그 일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지루한 날에는 누군가의 삶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같은 반복이 아니라 매번 그 차이를 드러내는 변주된 반복이다. 중요한 것은 버스 운전사이자 시인이라는 '패터슨'의 정체성이다. 그는 버스 운전사라는 직업에 충실한 종사자이며 일하는 틈틈이 시를 쓰는 시인이다. 알려진 시인도 아니고 시집을 출간한 적도 없으며 그러기를 욕망하는 것 같지도 않은 아마추어로 보이지만, 시는 이미 그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공간, 사람들, 풍경에 대한 사투 진지한 의식과 태도를 자님으로써 그의 시간은 좀 더 유의미하게 확장된다. 버스 운전사와 시인이라는 다소 엉뚱한 조합은 서로 방해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성실하다.

마다 똑같은 반복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가. '패터슨'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패터슨'의 시노트를 반려견 '마빈'이 갈기갈기 찢어버린 일이다. 즉, 그동안의 작업이 한순간에 무위로 돌아가고 마는 뜻밖의 사태가 '마빈'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빈'의 존재가 왜 그토록 자주 화면에 등장했던 것인지 비로소 그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마빈'은 단순한 잉여적 출연자가 아니라 '시'를 쓰는 패터슨의 일상에 전부를 가함으로써 그의 시 쓰기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요구하는 주동적 역활의 수행자였던 것. 늘 익숙한 보통의 존재이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가 곧 '마빈'이다. 반복되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포섭되지 않고 끊임 없는 차이를 생성해내는 가능성 찾기의 소임을 산뜻하게 일깨워주는 존재 '마빈'.

기고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다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대표

한국어에는 매우 다양한 색채를 띤 '우리'라는 말이 있다. 몇 가지 쓰임새를 알아보면, '나의' 대신 쓰이는 소속이나 소유를 나타내는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우리 엄마는 요리 잘해.' 등등. 두 번째로 한국의 것을 뜻하는 '우리'가 있다, '우리 정부, 손우리말' 등이 그것. 여기에 친근감을 나타내는 '우리 강아지', 포괄적 의미의 '우리나라', '우리 국민' 등등 다양하다. 이렇듯 '우리'는 한국인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 발화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딱딱하지 않은 쓰임새는 '협동이나 공동체를 강조할 때'의 쓰임새이다. '우리 같이 저번 준비하자.', '우리 팀은 이번 경기를 꼭 이길 거야.'가 즉 버전은 '우리 아빠는 정말 재미있어서.' 친구 버전 또한 '우리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여기에 조직과 국가 버전까지의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역사 깊은 곳이야.', '우리 국민들은 항상 단결해.' 등등. 그런데,

이런 '친근감과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인 '우리'가 '개인' 중시의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공익방송이라는 명목 아래 자주 흘러나오는 '우리'의 쓰임새 또한 그렇다. 세 가지 버전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다문화1 이주배경 청소년 버전 광고 대화'를 소개한다. #첫 번째, 17살 모히브의 친구 승원 (승원: 모히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농어요. 모히브: 뭐래~, 내가 너보다 슛은 잘 싸.) #두 번째, 17살 카리나의 친구 하늘 (하늘: 애,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어쩔 땐 저보다 더 잘 먹는단니까요. 안 땀나? 카리나: 전혀~.) #세 번째, 15살 김윤수의 친구 민승 (민승: 윤수 다른 점이야? 뭐 있냐? 김윤수: 글썽~. 민승: 아~, 우정이 남다르죠. 제일 친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 생김새가 다른 일명 '다문화' 아이들을 정주민인 한국인이 평가(?)하는 30초짜리 공익광고. 위의 대화에서 '우리'의 쓰임새는 '공동체'의 일원, '친근감'으로 볼 수 있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나?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분명 반쪽짜리다. 모히브가 '스웃 잘 넣는다'는 것, 카리나가 '한국음식에 저항감이 없다는 것', 김윤수의 '우정' 등 각자의 개성(다

를 점)이 부각되기도, 그들의 감성을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몰개성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만한 정주민 시점의 '동화'와 '권위'를 뒤집어 쓴, 콜로니얼리즘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에피소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히브는 농구를 잘해요' 대신 '모히브는 농구를 잘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와 같이 개성을 강조할 수 있다. 위의 대화 속 거슬리는 단어는 또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이라 외치는, 한국식 '친구' 문화다. 이 역시 뭐가 문제인가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특장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거리가 제로인 친구문화는 자칫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식 친구문화는 이를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관계는 거러다. 개인정보 말고도 나의 신체를 거리낌 없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친구' 문화는 한마디로 구시대적 정서다. 개인 존중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오토이 나만의 감성으로 채워진 세계에서 호흡하고, 필요할 경우 기꺼이 '선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라는 단어가 감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으로 개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社說

쓰레기소각장...구별 기피시설 형평 고려해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내 주변에 오는 것은 반대하는 게 기피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은 규모 면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극형 시설 1호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수차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에 나섰지만 관련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새로운 돌파구로 마련한 것이, 사-5개 자치구 공동 추진이다.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 시설)은 오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것이 금지됨과 동시에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안에 입지를 정해 추진해야 할 시설이다. 광주시가 시흥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광역시 최초로 5개 자치구가 먼저 신청을 하면, 이중 최적지를 골라 시가 광역단위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풀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시와 자치구들이 구별이 아닌 광역단위 소각장 건립에 찬성하고 최적의 입지를 찾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이다. 응모 요건에는 부지경계 300m 이내 거주 주민 50% 이상 동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막상 후보지로 거론되면 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반대에 나서서 형국에서 공모 절차 1단계인 자치구의 입지 후보지 선정 및 신청 자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 침해가 없는 곳을 입지로 골라 반발을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등 기피 시설이 집중됐던 지역과 기피 시설이 없었던 지역을 평가에 반영해 행정의 형평성을 갖추길 바란다.

연금액 가장 적은 전남 노인빈곤 대책 세워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타지역보다 월등하다. 이같이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정작 중요한 연금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선진국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가 회원국 노인 빈곤율을 공개하면서 2009년에 얻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OECD가 올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전국 229개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 폐지되는 노인은 무려 1만 5000명에 달했다. 요즘 같이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각각 6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폐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의 평균 나이는 78세로 여든을 눈앞에 둔 노인들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연금 수급자(2022년 기준) 수는 41만 3000명, 수급율은 94.7%로 전국 평균(90.4%)을 크게 상회해 전국 1위였다. 하지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55만 1000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65만원)보다 9만 9000원이나 적었다. 이 때문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줄거나 노인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고령층이 많은 실정이다. 낮은 출산율을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국가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고령 사회 정책도 뒤로 밀려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전남도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가 역사상 한 나라의 수도였던 적이 있다. 견훤이 892년 후백제를 건국하고 왕도로 정해 기틀을 닦은 곳이 광주(무진주)다. 순천에서 889년 병력을 일으켜 무진주에 터를 잡은 때를 헤아리면 지금으로부터 1131년 전이다. 삼국사기에는 "견훤이 무진주를 근거로 백제를 칭하자 무주 동남 군현이 항복하고 복속했다. 무진주를 삼국해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다"고 적고 있다. 후백제 첫 도읍이 광주라는 데 이견이 없으나 견훤의 출생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견훤은 상주 가은현(현 문경시 가은읍) 사람"이라고 기술돼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견훤의 무진주 복촌 탄생설화를 전하고 있어서다. 일부 학자는 무진주 복촌을 광주시 북구 생룡동(生龍洞)으로 해석한다. 용이 태어난 동네라는 비참한 지명에다 마을에 탄생설화가 구전되고 있다는 이유다. 견훤의 무진주 도읍을 입증하는 유적은 무등산에 있는 무진고성(武珍古城)이다. 전남대박물관이 1980년대 두 차례 발굴한 결과 조축은 8세기 말, 수축(修築) 시기는 9세기 말로 추정됐다. 당시 서조문(瑞鳥紋

무삭새, 성(城), 궁성(宮城), 국성(國城), 대궁(大宮) 등 왕궁이 발굴됐다. 모두 왕성이나 왕궁을 방증하는 유물인데 견훤의 광주도읍 시기와 맞물린다. 광주에서 견훤과 무진주를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유다. 지난해 광주시는 '후백제 왕도 광주 재조명 학술대회'를 열었고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과 지역사연구소는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광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후보지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이 센터는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하는 총괄 기구다. 광주시를 비롯해 후백제 두번째 도읍인 전주를 비롯해 충남 당진도 유적전에 가세했다고 한다. 학계에서 광주시는 후백제 첫 도읍으로 가장 많은 유적 등이 있어 센터 건립 후보지로 손색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별 써부터 객관적인 평가보다 정치권 입김이 작용해 공모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데 있다. 부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